“작은 손길로 쌓은 15년의 세월, 든든한 내일을 만듭니다”

인터뷰 – 든든한 보훈인

전남동부보훈지청 정삼례 보훈섬김이





박순자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어드리는 정삼례보훈섬김이(왼쪽). 지난해 11월 6일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든든한 보훈인 시상식에 참석한 정삼례 섬김이와 아들 김용 씨(오른쪽).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의 한 주택, 겨울을 잊은 듯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고요한 정적을 깨는 가위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는 작은 미용실이 열린 듯 6·25참전유공자 차공석(87) 어르신의 배우자 박순자(84)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는 정삼례(59) 보훈섬김이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미용실을 가지 못해 자라난 박순자 어르신의 머리카락은 정삼례 보훈섬김이의 손길이 닿자 금세 단정하게 정리됐다.

정삼례 보훈섬김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보훈가족들이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자 가위와 미용 도구를 준비해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염색을 해드려왔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일도 틈틈이 해왔다. 이제는 제법 전문가다운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 보훈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하고 있다. 보훈가족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혹여나 생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모습에는 그간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을 해왔는지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 든든한 보훈인에 선정된 것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보훈섬김이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에 세 곳씩, 주 15회 어르신들을 방문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아온 15년의 세월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쌓인 세월만큼이나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는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10여년 전 시아버지께서 고생한다며 편하게 움직이라고 자동차를 사주셨고, 아들은 든든한 보훈인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꽃다발로 축하를 전하기도 했다.

다시 나라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겠다 말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보며, 훌륭한 분들을 섬긴다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정삼례 보훈섬김이는 매일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다. 모두가 내 부모님,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훈가족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그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부축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생활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청소를 해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바로 곁에서 말벗이 되어 친구, 자녀가 되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보훈섬김이의 본분이라고 믿는다.

“제가 하는 일이 그분들의 소소한 일상과 직결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그분들의 삶을 궤적을 생생한 음성을 통해 체험하게 되고 기쁜 일, 슬픈 일 가릴 거 없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파도처럼 제게 몰려옵니다.

그는 오늘도 오래도록 보훈가족의 손발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쓰임새 있는 사람이,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다.

보훈가족의 미소에서 답을 찾다

내가 생각하는 ‘든든한 보훈’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한 일이 되고,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 활동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지난 한해가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했기에 아쉬움이 컸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는 것이다.

지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행복을 전하는 보훈연락선’을 기획해 운영했다. 지청 관할 내 140여개의 섬에 3,0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 주요 9개 섬에 직원들이 방문해 민원·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훈연락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제약이 많아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의 보훈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천항에서 배를 타거나 연륙교를 이용해 쉬지 않고 보훈가족을 찾아 나섰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소요되는 백령도와 2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 덕적도를 비롯해 여러 섬을 향하는 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고, 특히 신규 입사한 직원들은 보훈가족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눈을 반짝였다. 장시간 이동에 뱃멀미를 하며 지쳤을 법도 했지만 보훈가족의 얼굴을 마주하자 절로 미소를 짓게 됐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재가복지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보훈가족들에게 보철용 지팡이를 드리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하나씩의 미션을 완수해갔다. 틈틈이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어드리고 처리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현장에 도착한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대로 착착 움직였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와서 살펴주니 고맙다, 수고가 많다”며 격려해주셨고, 그 말에 직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섬을 오가며 여러 직원들이 수많은 격려의 말을 들었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10월 말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가족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부부 모두 인품이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는데 고령으로 보행이 어려워 면사무소에서 지원해준 보행보조차를 이용하고 계셨지만 자세히 보니 보조차가 어르신의 체형과 맞지 않아 불편해하셨던 게 마음에 걸렸다.

이튿날 인천보훈지청으로 돌아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행차를 구했고, 11월 연평도를 다시 찾아 직접 어르신께 보행차를 전해드리자 어르신의 얼굴에 함박미소가 피어올랐다. 부부가 기뻐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가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홀몸이나 부부세대 어르신들을 매주 2시간씩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고 말벗도 해드리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병원동행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안부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게 전부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좋은 상황에서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탐방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선미 인천보훈지청 복지팀